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확충 방안 연구

- 영국의 작은 공공도서관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Enhancement of the Public Library Infrastructure in Korea: Focusing on the Operation of Small Public Libraries in the UK

김 영 석(Young-Seok Kim)*

< 목 차 >

I. 머리말	3. 공공도서관의 규모
II. 연구의 목적 및 방법	IV. 영국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건립정책
1. 연구의 목적	1. 공공도서관의 역사와 운영 체계
2. 연구 방법	2. 개관시간 및 장서관리
III.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3. 지방자치정부의 공공도서관 건립정책
1. 공공도서관 현황	V.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건립 사례로서 부친의 작은 도서관
2. 공공도서관 건립정책의 문제점	VI. 끝맺는 말

초 록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최초의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4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시설은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절대적으로 크게 부족하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대규모 형태의 공공도서관 건립 방식이 도서관을 확충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을 짧은 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경우처럼 작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즉, 몇 개의 큰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큰 도서관을 건립할 비용을 쪼개어 여러 개의 작은 도서관을 건립·운영하도록 한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영국의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인프라스트럭처

ABSTRACT

The number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over the last 40 years, since the first Korean Libraries Act was passed in 1963. However, the public library infrastructure is still inadequate and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number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and western countries. This result proves that Korea's method of enhancing its public library infrastructure has not been effectiv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building of small, rather than large, public libraries as a more effective means of enhancing the public library infrastructure in Korea - the method adopted in Great Britain.

Key Words: Public Library, Small Library, British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Infrastructure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yskim7@mju.ac.kr)

• 접수일: 2007년 1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7년 3월 5일 • 최종심사일: 2007년 3월 22일

I. 머리말

오늘날 ‘정보센터’, ‘문화센터’ 그리고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근대적인 개념의 공공도서관¹⁾이 영국의 만체스터(Manchester)에 세계 최초²⁾로 문을 연지 150년 이상이 지났다. 그 후 현재까지도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출현한 인터넷의 영향으로 현대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은 세계 각국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개념의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초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의 기간동안 정치,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이렇다할 발전을 하지 못했다. 그 후 1963년에 도서관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양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이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꾸준히 그리고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는데, 도서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지난 40년간 27배³⁾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지난 40년간 양적인 면에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에서 크게 미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도서관의 부족을 인식하고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을 기준으로 437관인 공공도서관 수를 2011년까지 800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⁴⁾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으로 볼 때 이 계획의 목표 달성은 힘들어 보인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공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은 지방자치정부의 책임이 되었는데, 현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수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고, 한 번에 대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많은 지자체들이 짧은 기간 동안 공공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인, 같은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많은 수의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이 많이 필요한 대규모 도서관이 아닌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이 큰 규모의 도서관을 짓기 위해 투자하는 예산을 쪼개어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여러 개 건립하도록 정책을 바꾸고, 이러한 건립 정책을 전국에 걸쳐 적용한다면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에 공공도서

- 1) 일반적으로 근대적인 개념의 공공도서관은 공적자금(세금)에 의해서 건립·운영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 영국의 만체스터 공공도서관이다.
- 2) 미국 최초의 근대적인 개념의 공공도서관인 보스터 공공도서관은 만체스터 공공도서관 보다 2년 늦은 1854년에 개관하였다.
- 3) 도서관 통계에 의하면 1965년 18개였던 공공도서관은 2004년 487개로 증가하였다.
- 4) 문화관광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3-2011)(서울 : 문화관광부, 2002), p.23.

관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필자의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행된다. 즉,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에서 공공도서관 시설이 가장 완벽하게 구축된 국가 중의 하나인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지자체들이 어떻게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충해 왔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영국의 공공도서관들은 규모면에서 우리나라의 도서관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여 결과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 정책이 우리나라의 부족한 공공도서관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적으로 많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시설을 짧은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확충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계에서 공공도서관 시설을 가장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국가들 중의 하나인 영국의 공공도서관 건립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영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규모면에서 어떠한 형태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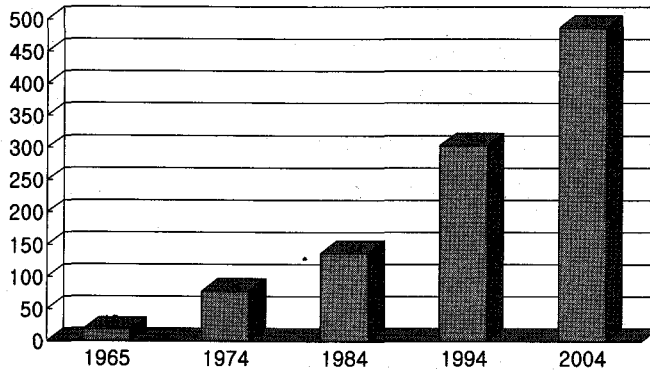
본 연구를 위해 필자는 크게 문헌조사방법과 필자의 영국에서의 공공도서관 연구·조사 및 이용 경험을 활용하였다. 즉, 우리나라와 영국 공공도서관의 크기(건물의 연면적)를 비교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영국의 도서관 통계자료 등을 각종 인쇄 및 웹(web) 자료를 통해 조사·분석하였다. 필자는 영국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또 박사과정 중 공공도서관을 연구·조사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많은 도서관을 방문⁵⁾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들이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5) 영국 7개 지역 50여개의 공공도서관을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다.

Ⅲ.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1. 공공도서관 현황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도서관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법이 1963년에 제정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아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5년에 18개였던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10년 후 78개로 증가하였고, 다시 10년이 지난 1984년에는 그 수가 137개로 증가하였다. 또 1994년에는 그 수가 10년 전 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304개가 되었고 또 다시 10년이 지난 2004년 말에는 그 수가 487관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 12월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514관이었고 2006년 한 해 동안 47개의 도서관이 새롭게 건립되어 2006년 12월 현재는 561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시설은 아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4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 증가 현황 (1965~2004)⁶⁾⁷⁾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시설은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절대적인 수준에서 크게 부족하다. 예를 들면, 아래 <표 1>과 같이 같은 OECD 회원국인 독일은 인구 7,520명당 공공도서관이 하나 있고, 일본은 인구 47,565명당 1개, 미국은 인구 16,726명당 1개 그리고 영국은 인구 13,068명당 공공도서관이 하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인구 약 92,000명당⁸⁾ 공공도서관이 하나 있다.

6)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서울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p.71.

7) 한국도서관협회. 2006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6), p.325.

8)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인구 4,725만 명 ÷ 514개 (2005년 말 현재 공공도서관 수)

〈표 1〉 세계 주요국의 공공도서관 수 및 1관당 인구 수⁹⁾

국 가	공공도서관 수	1관당 인구 수
노르웨이	1,010	4,506
핀란드	1,117	4,618
스웨덴	1,592	5,596
독일	10,932	7,520
스페인	5,209	7,591
이탈리아	6,003	9,636
캐나다	2,750	11,409
영국	4,614	13,068
프랑스	3,884	15,310
미국	16,491	16,726
일본	2,680	47,565
대한민국	514	92,000

우리나라처럼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가 많다는 것은 도서관의 입장에서 한 개의 도서관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인구가 많고, 또 넓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제한된 예산과 직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가 많다는 것은 넓은 지역에 도서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멀어져 시민들로 하여금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만들고, 도서관의 빈번한 이용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¹⁰⁾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가 많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서관 1관당 인구가 많아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수를 대폭적으로 늘려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2. 공공도서관 건립정책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공공도서관 시설을 꾸준히 그리고 큰 폭으로 확충해 왔다. 특히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 동안 무려 210개의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수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서관 수는 선진국들과 큰 차이

9) Fuegi, D. & Jennings, M. 2004, International library statistics-trends and commentary based on the Libecon data, p.48 & 51. <<http://www.libecon.org/pdf/InternationalLibraryStatistic.pdf>> accessed on 22.09.06.

10) 윤희운이 2002년에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도서관 비이용 원인' 조사에 의하면 '도서관이 멀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27.7%로 가장 많았다.

를 보이고 있고 많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많은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건립정책을 도서관의 크기(연면적)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중요한 시설중의 하나인 공공도서관의 부족을 인식하고 도서관을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내놓은 '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2001년을 기준으로 437관인 공공도서관 수를 2011년까지 800관으로 늘릴 계획이다.¹¹⁾ 즉, 2001년을 기준으로 인구 약 11만 명당 1개 수준인 도서관을 2011년까지 인구 6만 명당 1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02년부터 도서관을 매년 35관씩 건립하여 2011년에는 인구 6만 명당 1관 수준인 800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6년까지의 공공도서관 건립 현황을 살펴보면 이 계획의 달성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에 의하면 2006년 말까지 도서관 수는 총 612개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도서관 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이 계획의 달성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 통계¹²⁾에 의하면 2005년 12월까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총 514개관이다. 여기에 2006년 한 해 동안 47개¹³⁾의 도서관이 새롭게 개관하였다. 따라서 잠정집계한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총 561관이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대로 2011년까지 도서관을 800관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남은 5년 동안 239개의 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공공도서관 건립 현황을 살펴보면 남은 5년 동안 239개의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 이유는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25개의 도서관만이 건립되었을 뿐이고 또 지난 5년 동안 도서관이 가장 많이 건립된 2006년에도 47개의 도서관만이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건립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필자는 우리나라 도서관 건립정책의 문제점은 바로 도서관 건물의 적정 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한 정책결정자들이 규모면에서 효율적인 도서관 건축을 생각해보지 못한 채 기존의 건립방식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도서관 정책결정자들이 현재와 같은 대규모 도서관이 아닌 소규모 도서관 건립을 생각해내고, 이러한 방식으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정부의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 건립이 우리나라의 도서관 건립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주고

11)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서울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12) 한국도서관협회, 2006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6), p.325.

13)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근거함.

또한 가장 이상적인 도서관 확충 방안이라는 주장은 필자가 영국에서 수행한 영국 공공도서관에 대한 연구·조사와 공공도서관 이용 및 방문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필자가 영국 현지에서 쌓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경험¹⁴⁾에 의하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와 영국 공공도서관 시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도서관 건물의 규모(연면적, floor space)에 있다. 즉,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을 제외하고 그 규모가 매우 작은 데 반해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분관 구분 없이 대체로 건물의 규모가 크다. 다시 말하면, 영국 공공도서관의 연면적은 작은 데 반해 우리나라 도서관의 연면적은 크다는 것이다.

도서관 건물의 규모(size) 혹은 연면적(floor space)은 도서관 확충을 위한 계획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규모는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인 예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도서관을 큰 규모로 건립한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만약 큰 규모의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된다면, 그 도서관 건립 계획은 무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도서관을 작은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라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적은 예산으로도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도서관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건립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도서관 건물의 적정 규모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 한다. 즉,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 도서관 건립정책을 수립하다보니 예산이 많이 요구되는 대규모 도서관만 짓고 있고, 결과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도서관이 계획대로 많이 건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공도서관 건립정책 수행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대규모 도서관을 짓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도서관 정책 입안자들은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확충되도록 하기 위해, 각 지자체를 조언하여 이들로 하여금 대규모 도서관이 아닌 소규모 도서관을 짓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공공도서관의 규모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확충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규모면에서 얼마나 큰 것일까? 우리나라 도서관의 크기

14) 필자는 영국에서 박사과정 중 논문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그리고 기타 목적으로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영국 6개 지역(시군구)에 있는 20여개의 공공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영국의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세필드지역을 중심으로'를 수행하기 위해 세필드시에 있는 27개의 공공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였다.

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비교 대상이 있어야 가능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서관만을 놓고 봤을 때는 도서관의 크기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도서관 건립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영국의 도서관과 비교 하였다. 비교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도서관의 크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첫째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전반적인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에 발행된 '한국도서관연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전체¹⁵⁾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역별 및 전체 크기(연면적)를 조사하였다. 둘째, 최근의 우리나라 도서관 건립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즉, 현재 우리나라가 도서관을 얼마나 크게 짓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건립된 공공도서관¹⁶⁾의 연면적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위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689㎡(815평)이다. 이 면적은 대체로 서울 등 대도시 공공도서관의 평균 면적 보다는 많이 작고 소도시 및 군으로 이루어진 각도 도서관의 평균 보다는 다소 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도서관이 대도시에서는

<표 2> 우리나라 지역별 공공도서관의 총 연면적 및 1관당 평균 연면적 현황

시·도	도서관 수 ¹⁷⁾	총 연면적(㎡)	1관당 연면적(㎡)
서울	38	157,690	4,150
부산	22	63,731	2,897
대구	12	76,185	6,349
인천	11	43,194	3,926
광주	12	64,540	5,378
대전	15	62,967	4,198
울산	5	14,637	2,927
경기도	67	245,735	3,668
강원도	39	73,183	1,876
충청북도	25	51,548	2,062
충청남도	38	66,203	1,742
전라북도	35	71,963	2,056
전라남도	44	71,494	1,625
경상북도	51	87,810	1,722
경상남도	42	83,995	2,000
제주도	17	37,208	2,189
합 계	473	1,272,083	2,689

15) 사립공공도서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사립도서관은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건립되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문제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6) 위와 같은 이유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7) 사립 공공도서관은 개인이나 사기업들의 재정형편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 도서관의 크기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건립 정책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되어 통계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매우 크게 건립되고 있고 소도시나 군지역에서는 다소 작게 건립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최근 3년간 개관한 공공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부록 1>, <부록 2>, <부록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 2004년 2,568㎡(778평), 2005년 2,186㎡(662평) 그리고 2006년 2,426㎡(735평)이었는데 이 면적들은 전체 평균보다 조금 작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과거에 비해서 작게 지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신축된 도서관의 건물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작게 지어지고 있지만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2005년 개관한 도서관(2,186㎡)이 2004년 개관한 도서관(2,568㎡) 보다 전체 평균에서 작아졌지만, 2006년 개관한 도서관의 평균 크기(2,426㎡)는 다시 커져서 2004년에 건립된 도서관의 크기와 거의 같아졌다. 2005년에 건립된 도서관의 평균 크기가 2004년에 건립된 도서관보다 작았던 이유는 <부록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해에 많은 어린이전용도서관이 개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도서관은 말 그대로 어린이만을 위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 규모가 일반 공공도서관보다 작다. 예를 들면, 현재까지 건립된 9개 기적의 도서관¹⁸⁾의 경우 순천기적의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그 면적이 1,000㎡를 넘지 않는다.

지난 3년간을 토대로 봤을 때 도서관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지 않다는 결과는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규모를 작게 해서 더 많은 도서관을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서관을 크게 짓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위에서 필자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우리나라와 영국 공공도서관의 차이는 도서관의 규모에 있다고 말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영국 공공도서관의 크기를 조사·분석 하였다.

IV. 영국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건립정책

1. 공공도서관의 역사와 운영 체계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근대적인 개념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에도 매우 완벽한 도서관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1850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국가단위의 도서관법(the Public Library and Museums Act)을 제정하였고, 만체스터(Manchester)시는 이 법에 근거하여 1852년에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였다. 이 도서관은 공적자금

18) 순천 기적의 도서관(1,304㎡),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911㎡), 제주 기적의 도서관(661㎡), 진해 기적의 도서관(612㎡), 울산북구 기적의 도서관(729㎡), 제천 기적의 도서관(817㎡), 청주 기적의 도서관(874㎡), 금산 기적의 도서관(528㎡), 부평 기적의 도서관(925㎡).

으로 건립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개념의 공공도서관이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매우 명확한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공공도서관들은 일부(북아일랜드)¹⁹⁾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정부에 의해서 운영 및 관리되고, 완전한 분관시스템 하에서 운영된다. 한 지역, 즉 한 지방자치정부가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들은 하나의 중앙관(Central Library)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상호 연계(networked)되어 있다. 이 경우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들은 분관(Branch Library)이 된다. 따라서 중앙관과 분관의 상호 관계는 의도적인 관계가 아닌 태생적 관계이다. 즉, 분관이 만들어지고 차후에 의도적으로 이 분관이 중앙관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모 밑에 자식이 태어나듯 분관이 건립됨과 동시에 중앙관과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다. 이점이 공공도서관의 상호협력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이다. 즉,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도서관이 건립되고 차후에 같은 지역에 또 다른 도서관이 문을 열 때, 그 도서관은 첫번째 도서관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두 도서관간에 연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도서관의 탄생이 중앙도서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한 지역에 중앙도서관이 건립되면 이 중앙관의 최고 경영자인 도서관장의 주도하에 다른 도서관(분관)을 건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도서관을 중앙관과 연계되는 분관으로 삼는다.

영국의 한 지역 - 한 지방자치정부가 관할하는 행정 구역 - 의 공공도서관에는 도서관의 수에 관계없이 언제나 한 명의 관장만 있다. 예를 들면, 인구 약 71만명의 리즈(Leeds)시에는 공공도서관이 55개²⁰⁾ 있는데 이중 중앙도서관의 최고 경영자만을 관장(Director 혹은 City Librarian)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도서관의 책임자는 관장이 아닌 분관책임자(Branch Library Manager)라고 부른다. 또 인구 52만명의 셰필드시에는 공공도서관이 27개²¹⁾ 있는데 여기에도 관장은 한 명만 있다. 관장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의 모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제공이 한 명의 관장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즉, 많은 도서관들의 운영, 서비스제공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한 명의 관장 하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따라서 한 지역의 도서관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 현황 통계는 개별 도서관 단위로 발표되지 않고 지역단위로 발표된다. 예를 들면, 셰필드 공공도서관에 대한 각종 통계는 셰필드에 있는 개별 도서관 단위로 집계 되어 발표되지 않고 셰필드에 있는 27개 전체로 집계되어 발표된다. 영국에는 현재 208개의 지방자치정부가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각종 통계는 208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발표된다. 이러한 결과는 영국의

19) 북아일랜드에서는 '교육 및 도서관위원회'(Education & Library Board)가 공공도서관을 운영 및 관리한다.

20) Leeds City Council, Facilities and services in local libraries, 2006, [accessed 2006.10.20].

<http://www.leeds.gov.uk/Leisure_and_culture/Libraries/page.aspx>

21) Sheffield City Council, Local Libraries, 2006, [accessed 2006.10.20].

<<http://www.sheffield.gov.uk/in-your-area/libraries/find/local-libraries>>

공공도서관이 완전한 분관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의 공공도서관도 하루 빨리 완전한 분관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시스템이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같이 완전한 분관체제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지역 내에서 몇 개의 도서관이 운영되는 경우 모든 도서관에 관장이 있어 이들 관장의 주도 하에 개별 도서관들이 운영된다. 따라서 한 지역 내에서 조차 도서관간에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기본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모든 개별 도서관에 관장직을 두는 제도는 인건비 등 도서관 운영 예산의 증가를 가져와 경영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²²⁾

2. 개관시간 및 장서관리

영국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은 우리나라의 도서관처럼 일률적이지 않다. 즉, 한 지역에서 중앙관과 분관들의 개관시간은 각 도서관마다 모두 다르다. 예를 들면, 같은 분관이면서도 A도서관은 일주일에 20시간 개관하고 B도서관은 일주일에 30시간 개관하는 식이다. 이처럼 도서관마다 개관시간이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완전한 분관시스템 하에서 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즉, 특정 시간대 혹은 요일에 한 지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개관하지 않고 일부 도서관만 개관하면서도 한 지역(시·군·구)에서 일주일 혹은 일 년 내내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운영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운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도서관 전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분관은 기본적으로 적은 규모의 이용자 집단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삼고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화와 전체 도서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개관시간을 줄인다. 따라서 작은 분관의 경우 대체로 일주일에 20시간 내에서 개관한다. 영국 도서관 통계²³⁾에 의하면 전체 공공도서관의 37%가 일주일에 10-30시간 내에서 개관한다.

작은 분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장서관리 문제다. 즉, 작은 분관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공공도서관의 완전한 분관시스템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인식하는 분관시스템 하에서는 분관과 중앙관의 역할이 완벽하게 나누어져 있다. 즉, 분관은 기본적인 참고자료와 몇 종의 신문 및 정기간행물 그리고 최신

22) 우리나라의 한 지역에서는 현재의 독립운영 체제를 분관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모든 도서관에 현재의 관장 직위를 그대로 두면서 한 도서관의 관장으로 하여금 모든 도서관을 총괄하도록 하기 위해 한 도서관의 관장의 직급을 한 등급 격상시켰다. 이것은 관리의 효율화를 명목으로 결과적으로 관장의 직급을 올려 관리 비용의 증가만 가져오는 꼴이 되고 말았고 현재도 여전히 모든 통계는 개별 도서관 단위로 발표되고 있다.

23) CIPFA(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 Public Library Statistics 2005-06 Estimates and 2004-05 Actuals(London : CIPFA, 2005).

도서관을 기본 장서로 하여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 그 기본 역할이다. 반면에 중앙도서관은 분관의 기본 기능 외에 연구도서관, 참고도서관 그리고 보존도서관의 기능을 추가로 수행한다. 따라서 분관에서는 수시로 장서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이 되지 않는 장서를 중앙관으로 이관시키거나 아니면 과감히 제작·폐기시킨다. 이렇게 하면 분관은 자체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능 수행이 가능하여 장서관리에 문제가 없다. 영국의 작은 분관의 경우 대체로 4-5,000권의 장서만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공공도서관들이 자주 이용되지 않는 장서들을 수시로 제작·폐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중의 하나는 폐기된 장서를 열람실에서 매일 중고책으로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다.

3. 지방자치정부의 공공도서관 건립정책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지방자치정부의 몫이다. 정확히 말하면 지방자치정부 내의 도서관담당부서의 책임이다. 도서관담당부서(혹은 도서관당국, Library Authority)는 대체로 지방자치정부 조직에서 교육 및 문화국에 소속되어 있다.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지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서관의 건립은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의지와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영국이 오늘날과 같은 매우 완벽한 공공도서관 시설을 갖추게 된 근본 이유는 완전한 분관시스템을 채택함과 동시에 분관용 도서관으로 아주 작은 도서관을 건립해 왔기 때문이다. 각 지방정부는 하나의 큰 규모의 중앙관을 시내 중심가²⁴⁾에 건립하고 나머지 분관들은 매우 작게 건립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가, 상가 혹은 쇼핑센터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시켜 두었다. 즉, 각 지방정부는 하나의 중앙관만 크게 짓고 나머지 도서관은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작게 건립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많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완벽한 공공도서관 시설을 갖추게 된 주된 요인이다.

실제로 영국의 공공도서관들이 우리나라의 도서관들과 비교하여 그 규모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영국 공공도서관에 대한 연면적 조사결과 1관당 평균 면적은 550㎡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평균 면적인 2,689㎡의 4.9분의 1에 불과하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 결과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영국의 평균 도서관 규모로 도서관을 작게 건립해

24) 영국 각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중앙도서관을 대체로 시청이나 구청 건물 바로 옆에(리즈 중앙도서관의 경우) 혹은 근처에(셰필드 중앙도서관의 경우) 건립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결과적으로 지자체 청사에 대한 중요성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중요성도 충분히 인식한데서 나온 결과라고 하겠다. 이에 반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청사를 지역의 요지에 거대하게 건립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청사를 건립할 때 근처에 도서관을 전혀 건립하지 않고 있는 현실과 매우 대조적이다.

〈표 3〉 영국의 지역별 공공도서관 총 연면적 및 1관당 평균 연면적 현황²⁵⁾

시 혹은 지역	도서관 수	건물 연면적 (floor space)(㎡)	1관당 연면적(㎡)
세필드시	27	11,799	437
남동부	461	210,337	456
런던시	360	285,247	792
동부	306	133,956	437
중동부	296	122,738	415
북동부	201	96,622	481
북서부	441	263,023	596
남서부	324	142,884	441
중서부	298	174,234	585
요크셔 및 험버사이드	354	167,691	474
잉글랜드 전지역	3,041	1,596,732	525
웨일즈	260	98,338	378
스코틀랜드	495	402,142	812
아일랜드	134	64,315	480
영국 전체	3,930	2,161,527	550

왔었다면 1개관의 건립 예산을 가지고 거의 다섯 개의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도서관만을 건립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도서관 건립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규모로 몇 개의 도서관만 건립하는 우리나라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떨어뜨려 도서관 이용을 어렵게 만들었고, 국민들로 하여금 늘 도서관의 부족을 느끼게끔 하였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도서관 건립정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 고서도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야기 시켰다. 만약에 우리가 영국식의 소규모 도서관 건립 방식을 채택하여 왔다면 우리는 현재 지금의 도서관 수보다 거의 다섯 배 많은 도서관 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 수는 500여개인데 이 도서관들을 현재의 규모가 아닌 영국처럼 작게 건립하였다면 우리나라는 약 2,500여개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 이고, 이 정도의 도서관 수면 프랑스의 공공도서관수(2,577개)와 거의 같고 일본의 공공도서관 수 인 2,681개와 비슷해진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총면적을 인구 1,000명당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도서관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총면적은 26.32㎡이고, 영국 공공도서관의 총면적은 35㎡²⁶⁾이다. 도서관수에 있어서 영국과 우리나라의 차이²⁷⁾는 2005년을

25) 2005년 3월 31일 현재

26)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총면적 1,272,083m² / 총인구 48,290,000명 × 1,000(명), 영국 공공도서관의 총면적 2,161,527m² / 총인구 59,855,500명 × 1,000(명)

27)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 514개관(2005년 12월 기준), 영국 공공도서관 수 3,930개관(2005년 3월 기준)

기준으로 7.6배이다. 즉,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7.6배 더 많은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의 면적에 있어서는 두 나라 사이의 차이는 1.3배밖에 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국의 국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서관 면적을 아주 적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정작 도서관 이용에 절대적이 영향을 끼치는 도서관 수 즉, 접근성면에서는 많은 불편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건립정책이 작은 도서관, 즉 도서관을 작게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V.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건립 사례로서 부천의 작은 도서관

부천시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관 시설이 가장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도시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부천시가 이처럼 완벽한 공공도서관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은 영국과 같이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분관으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 공공도서관의 규모(면적, floor space)가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다른 지역과 어떻게 다르고 또 영국 공공도서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인구 약 85만의 부천시에는 1개의 중앙도서관, 3개의 지역도서관, 1개의 지역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11개의 작은 도서관 즉, 분관을 가지고 있어 크고 작은 도서관이 총 16개 있다. 따라서 부천의 경우 인구 약 53,000명당 공공도서관이 하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인구 92,000명당 1개 수준보다 월등히 나은 도서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표 4〉 부천시 공공도서관의 연면적 현황

도서관 명	건물 연면적(㎡)	도서관 명	건물 연면적(㎡)
중앙도서관	4,386	이름드리도서관	132
북부도서관	2,890	약대신나는 가족도서관	106
꿈빛도서관	3,347(4,055 ²⁸⁾)	사랑나무 가족도서관	149
심곡도서관	2,500	햇살이 가득한도서관	173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	448	꿈나무가족도서관	209
새싹어린이도서관	132	복사꽃필부림도서관	78
고리울 꿈터도서관	98	소새울 가족도서관	153
행복한도서관	83	총 연면적	14,077
도란도란어린이도서관	93	1관당 평균 연면적	936

28) 옥상면적이 포함된 연면적.

부천시의 16개 도서관의 총 연면적은 위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4,977㎡인데 이것은 1관당 평균 936㎡에 해당된다. 이 면적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인 2,689㎡의 2.87분의 1에 불과하여 상당히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천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영국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인 550㎡의 1.7배에 해당되어 여전히 영국의 도서관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천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이 11개의 매우 작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 보다 큰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부천은 대규모의 중앙도서관 외에 3개의 상당히 큰 지역도서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영국의 공공도서관이 우리나라의 도서관과 비교해서 매우 작기 때문이다.

<표 5> 우리나라와 영국 그리고 부천시 공공도서관의 1관당 평균 연면적

지역 및 국가	1관당 평균 연면적
우리나라	2,689㎡
부천시	936㎡
영국	550㎡

이와 같이 부천시는 많은 도서관을 작은 규모로 건립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도서관계에서 매우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도서관 운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부천시의 사례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준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부천시의 작은 도서관 건립사례를 표본으로 삼아 작은 규모의 도서관 건립을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의 핵심으로 삼아야 하겠다.

VI. 끝맺는 말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개념의 공공도서관이 건립 된지 100년이 지났고 또 공공도서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법이 제정 된지 4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꾸준히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도서관 시설은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필자는 그 이유를 도서관 정책 결정자들이 도서관 건물에 대한 적정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 하지 않은 채 도서관을 건립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많이 요구되는 대규모 형태로 지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이 얼마나 큰지 도서관의 연면적을 영국의 도서관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1관당 평균 연면적은 2,689㎡로 영국의 도서관(550㎡) 보다

무려 다섯 배 가까이 컸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때 영국의 방법처럼 도서관을 작게 건립하였다면 즉, 크기를 현재보다 5분의 1로 줄여서 건립하였다면, 건립 예산을 5분의 1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절약된 예산으로 또 다른 4개의 도서관을 건립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도서관을 5개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을 전부 투자하여 하나의 대형 도서관만을 건립하였다. 이렇게 대형 도서관만을 건립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지난 수 십 년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서관 시설이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또한, 인구 1,000명당 공공도서관의 연면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도서관 건립정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수(514개관)와 영국 도서관 수(3,930개관)의 차이는 무려 7.6배이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공공도서관의 연면적은 우리나라(26.32㎡)와 영국(35㎡)의 차이는 1.3배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서관면적을 영국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서관 수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는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이다. 16개의 도서관 중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하여 12개의 작은 도서관을 건립·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외의 경우에도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936㎡)은 영국(550㎡)보다 1.7배나 컸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 건립하는 공공도서관의 건물은 현재의 크기보다 현저하게 작게 건립한다.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서관의 접근성이다.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시민들 가까이에 두어야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도서관의 규모를 최대한 줄여 작게 많이 건립하는 것이다. 필자는 영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토대로 분관용으로 4~500㎡(120~150평 내외) 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제안한다.

둘째, 앞으로 새롭게 건립되는 모든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중앙관의 분관으로 삼아 한 행정구역 내에서의 도서관 운영이 완전한 분관체제가 되도록 만든다. 이러한 분관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한 명의 관장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는 도서관 운영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작은도서관 건립정책'은 도서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고려 없는 단순한 '도서관운동'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건립정책'은 기존의 대규모 도서관 건립 방식을 탈피하여 소규모 형태의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소규모 형태의 도서관 건립으로서의 '작은 도서관 건립 정책'과 도서관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 건립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서직원의 배치에 있다. 즉, 필자가 주장하는 소규모 형태의 도서관 건립에는 반드시 사서직원의 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사서직원을 배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공도서관이 아니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이 우리나라 도서관보다 거의 다섯 배나 작으면서도 이것들을 완전한 공공도서관으로 정의하는 근거는 이들 작은 도서관에 전문직 사서직원이 한 명 이상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작은도서관 건립정책'은 전문직 사서직원을 두지 않는 방식 즉, 문고를 다시 양성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공공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확충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은도서관 건립정책'은 공공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문고가 아닌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로 하여금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형태로 도서관을 건립하게끔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석. "영국의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세필드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 제58권, 제4호 (2003), pp.3-38.
- 김영석. "변화하는 영국의 공공도서관." 도서관문화, 제45권, 제4권(2004), pp.50-51.
- 문화관광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3~2011). 서울: 문화관광부, 2002.
- 손정표. "지방자치제하에서의 공공도서관 지역계획에 관한 고찰." 도서관, 제48권, 제2호(1993), pp.17-36.
- 윤희윤.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의 운영 방안." 도서관, 제57권, 제1호(2002), pp.40-79.
- 윤희윤 등. 한국의 도서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서울: 2006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2006.
- 한국도서관협회. "통계로 보는 도서관계." 도서관문화, 제47권, 제5호(2006), p.85.
- 한국도서관협회. 2004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4.
- 한국도서관협회. 2005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5.
- 한국도서관협회. 2006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6.
- 한국도서관협회. "신설도서관." 도서관문화, 제46권, 제1호(2005) - 제12호.
- 한국도서관협회. "신설도서관." 도서관문화, 제47권, 제1호(2006) - 제12호.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 CIPFA(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 *Public Library Statistics 2005-06 Estimates and 2004-05 Actuals*. London: CIPFA, 2005.
- Fuegi, D. & Jennings, M. International library statistics - trends and commentary based on the Libecon data. 2004, pp.48 & 51. [accessed on 2006.09.22].

〈<http://www.libecon.org/pdf/InternationalLibraryStatistic.pdf>〉

Kim, Young-seok. Opening small public libraries in quiet shopping malls could boost local businesses in Goyang, Korea. WLIC 2006 Seoul. 22 August 2006.

Leeds City Council. Facilities and services in local libraries. 2006. [accessed 2006.10.20],

〈http://www.leeds.gov.uk/Leisure_and_culture/Libraries/page.aspx〉

Sheffield City Council. Local Libraries, 2006, [accessed 2006.10.20],

〈<http://www.sheffield.gov.uk/in-your-area/libraries/find/local-libraries>〉

〈부록 1〉 2004년에 개관한²⁹⁾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연면적 현황

도서관 명	건물 연면적(㎡)
인천 연수도서관	5,344
관암도서관(가오도서관분관)	85
용인 수지도서관	3,834
광명시 하안도서관	7,861
화성시 삼괴도서관	919
평창 대화도서관	1,618
청주 기적의도서관	874
제천 기적의도서관	817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5,560
진해 기적의도서관	612
울산북구 기적의도서관	729
총 연면적	28,253
1관당 평균 연면적	2,568

〈부록 2〉 2005년에 개관한³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연면적 현황

도서관명	건물 연면적(㎡)
구로꿈나무도서관	638
거마도서관정보센터	885
평택시립안중도서관	4,191
파주시립중앙도서관	6,388
화성시립병점도서관	2,289
동두천꿈나무정보도서관	1,980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2,756
용인어린이도서관	1,194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1,478
슬기샘(어린이) 도서관	2,565
바른샘(어린이) 도서관	2,632
지혜샘(어린이) 도서관	2,404
김제시립금구도서관	991
양평어린이도서관	1,970
금산기적의도서관	528
양구도서관	2,082
총 연면적	34,971
1관당 평균 연면적	2,186

29) 2005년도 발행 한국도서관연감에 의하면 2004년 한 해 동안 총 16개의 도서관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연감에 나타난 개별 도서관의 개관 년월일을 통해 2004년도에 개관한 도서관 숫자를 파악해 보면 13개관에 불과하다. 13개 중 2개는 사립도서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1개의 도서관만 그 면적을 조사하였다.

30)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행하는 「도서관문화」의 2005년 1월호부터 12월호에 소개된 공공도서관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부록 3〉 2006년에 개관한³¹⁾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연면적 현황

도서관명	건물 연면적(㎡) ³²⁾	도서관명	건물 연면적(㎡)
노원정보도서관	6,526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3,094
서귀포시서부도서관	1,175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7,495
신월디지털정보문화센터	841	안산중앙도서관	6,749
진주 어린이전문도서관	1,079	경기도립발안도서관	2,182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2,846	제천의병도서관	1,864
안양시립박달도서관	2,498	양평군립용문도서관	1,437
서수원 지식정보도서관	4,586	시흥어린이도서관	2,917
북수원 지식정보도서관	4,480	농소리도서관	953
부평 기적의도서관	925	공주강북시립도서관	2,285
영월주천공공도서관	700	영암군립도서관	2,434
완산군립 고산도서관	1,154	진해시립동부도서관	3,367
아산어린이도서관	561	해운대구 재송어린이도서관	1,089
포천시립일동도서관	1,998	경기도립 녹양도서관	2,092
달서구립도원도서관	1,228	고흥군립북부도서관	660
달서어린이도서관	1,379	연수어린이도서관	1,724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2,406	평택지산초록도서관	2,187
계룡도서관	2,736	광주시 광산구 칠단도서관	1,997
양주시립꿈나무도서관	2,600	춘천시면도서관	973
성동구립금호도서관	1,494	총 연면적	94,627
군포시어린이도서관	2,372	1관당 평균 연면적	2,426
충주시립도서관	5,544		

31)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행하는 「도서관문화」 2006년 1월호부터 12월호에 소개된 공공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32) 도서관협회 발행의 「도서관문화」와 각 도서관에서 밝히고 있는 도서관의 연면적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두 통계 간에 평을 제곱미터로 그리고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수치의 약간의 오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